

기관 매수에서 얻는 힌트

정유정 (02)3774-6068 / amouryj@miraeasset.com

매수로 돌아선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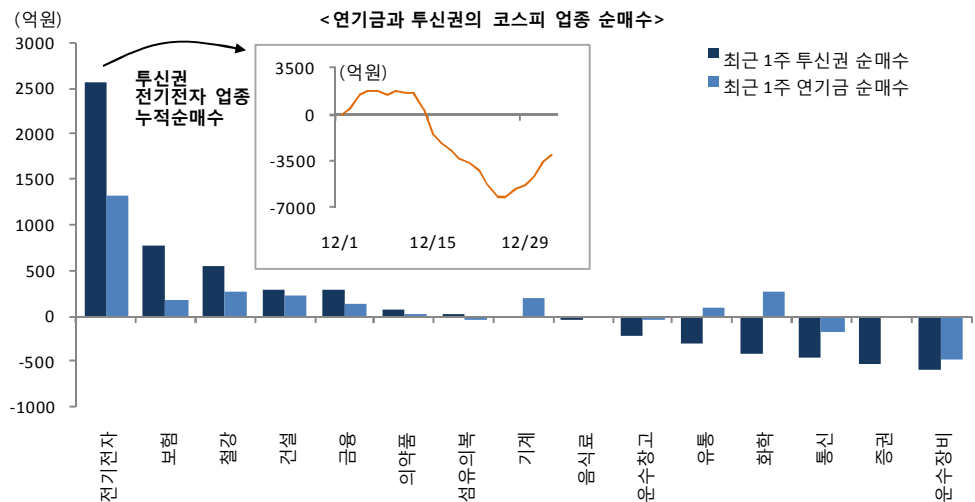
코스피는 이틀째 사상최고치 돌파. 특히 이번에는 외국인 뿐 아니라 기관도 상승장에 동참하고 있어 시장에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음.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기관 수급에 숨통이 트인다면 투자 측면에서도 힌트 얻어볼 수 있을 듯

1. 기관은 어떤 업종을 매수?

최근 기관이 달라진 이유는 1) 연초 이후 연기금 매수세 강화 2) 투신권 매도 규모 완화에 있음. 12월 말 매수규모를 축소했던 연기금은 연초부터 다시 기관 수급의 주역이 되고 있음. 국민연금은 11월말 기준 주식 비중이 15.9%였는데, 2011년에는 18%까지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시에 든든한 역할 해 줄 것. 투신권은 아직 여력이 많지 않지만, 지수 상승 지속되면 유출 규모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 관심. 최근 1주간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 업종을 보면 공통적으로 전기전자업종에 모이고 있음. 특히 투신권은 작년 12월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세 높이다가 최근 강하게 매수세 유입되고 있음. 기관 매수세 지속된다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략

[그림 1] 기관 매수세는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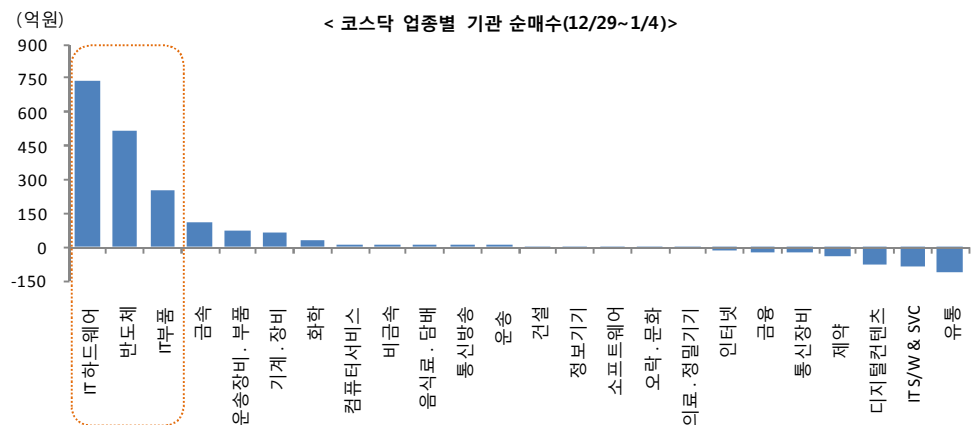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증권전산,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2. 중소형 주, 회복하나?

사실 기관 매수가 가장 반가운 것은 중소형주임. 작년 외국인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바람에 중소형주가 부진했었기 때문. 펀드 자금 유출로 기관의 중소형주 매수 여력 부진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었음. 하지만 최근 1주 성과를 보면 코스닥(+5.3%)가 코스피(+2.5%) 보다 상승세 높는데 이는 기관 매수와 관련이 있음. 코스닥에서 최근 개인이 매도하는 데도 기관이 매수하며 지수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 12월 거의 한달 내내 기관이 매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 기관 매수세 이어진다면 중소형주의 갭 메우기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하지만 중소형 주 내 기관 매수 형태를 보면 특정 업종에 매수세 집중되고 있음. 주로 IT 하드웨어/반도체 중심으로 매수. 중소형 주에 대한 접근은 기관 매수가 모이는 코스닥 내 대형주, 그 중에서도 IT 반도체업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2] 중소형주 중에서도 IT 관련 업종 중심으로 대응



자료: 한국증권전산,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자산운용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과거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